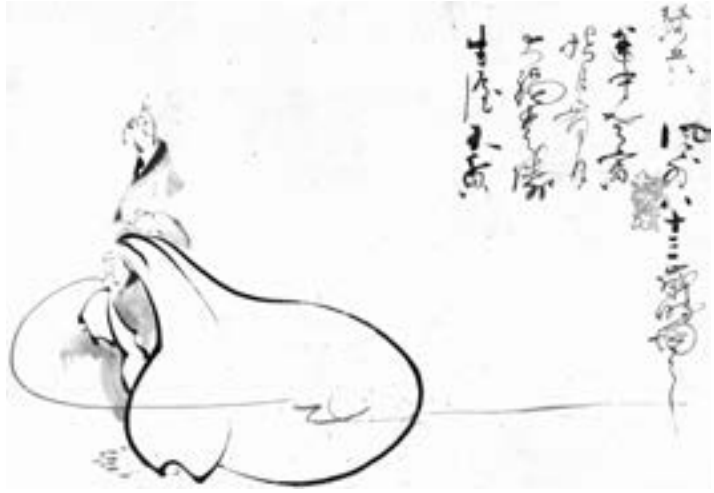


영적 상징과 꿈 <40>

부제: 주님이 해주시는 꿈 해석 5



<포대화상, 달을 가리키다>

어느덧 이긴자께서 친히 해주시는 꿈 해석 그 다섯 번째입니다. 이 시리즈가 시작된 것은 지인을 통해 주님이 친히 해주시는 꿈 해석 녹음을 얻게 된 행운, 아니 안배 덕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꿈 해석의 길에 들어선 지 17년만에 처음으로 주님의 꿈 해석을 육성으로 들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적 방법이 아니라 내유강화지교(內有降話之敎)의 형태로 제 스스로 등장하여 진행되는 꿈 해석이었기에, 주님이 친히 하시는 꿈 해석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던 터였지만 막상 육성으로 꿈 해석을 들었을 때의 감회는 남달랐다 하겠습니다.

꿈을 만드는 자도 하나님이고, 해석하는 자 또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꿈뿐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내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마지막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이사야서 41:4)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꿈 해석의 호사(好事)를 함께 누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12

“제가 제단에 와서 생시 같은 꿈을 했는데요, 주님이 전라도 지방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주님하고 같이 발을 뺐어요. 주님이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붙이고 호미를 들고 저랑 같이 발을 매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단차를 타고 주님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세단차가 원래 두 칸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는 세 칸이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이랑 발을 매고 세단차를 타고 다니는 꿈을 꿴어요.”

이긴자

“거참 좋은 꿈을 꿴구나. 발을 맨다는 건 여러분들, 발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거죠? 그건 마음의 잡초, 잡초와 같은 마음을 뽑아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차를 타고 달린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막 달린다는 말이야.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잘 올라가는 사람의 얼굴은 말야, 보통 사람들은 봐도 모르지만 이 사람 눈으로는 그 얼굴이 달라요. 영적으로 달리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어. 얼굴이 예쁘게 생겨서 예쁜 게 아니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그 얼굴이 아름답게 보일까, 보기 싫게 보일까? 아름답게 보이죠? 꿈 얘기하다 보면 아마 하루 종일 할 거야.”

주해(主解)

: 꿈은 간단히 말하면 '나'라는 어둠을 뚫고 깊은 무의식의 층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줄기 빛 덩어리, 공적영지(空寂靈知)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말하는 '생시같이 선명함' 이런 꿈이 등장할 확률은 내 속하나님이 강할수록, 반대로 내 마귀는 약할수록 커진다 할 수 있습니다. '생시 같은' 꿈을 꾸었다는 도입 부만으로도 이 꿈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역시나 꿈의 초입부터 주님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꿈이 시작됩니다. 꿈의 시작 부분은 꿈 전체의 배경, 토대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장면은 앞으로 이 꿈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분의 중심이 어떠한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불교의 선(禪) 공부에서 '오매일여(寤寐一如)'란 말이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한결같이 투철히 화두(話頭)를 참구(參究)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화두는 말하자면 주님입니다. 그들이 죽은 화두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화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을 화두로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분은 잠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깨어서는 어떻게 잠이 가지 않을까? 해서 주님께서도 '영적으로 잘 달리는 자의 얼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여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잠깐, 선(禪) 얘기가 나온 김에 선(禪)이란 단어가 자체에 담긴 영적 의미를 심심파적 삼아 잠깐 살펴볼까요. 선(禪)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 디야나(dhya-na) 팔리어로는 자나(jha-na)인데 이를 음사(音寫), 음역(音譯)해서 선나(禪那)가 되었고 여기서 나(那)를 빼서 선(禪)으로 정착되었다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한자는 태생적으로 그 안에 영적 함축과 상징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해서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원어(原語)보다 오히려 선(禪)이란 한자 안에 그 본질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선(禪)은 示(보일 시)와 單(홀 단)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하나(單)는 하나님, 자성(自性)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我)자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我)+示+單 즉, 내가 하나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는 보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과연 인간 내가 대상을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인간 내가 자성(自性)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는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짓입니다.

실은 거꾸로가 맞습니다. 주어(主語)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나(我), 인간 내가 주어(主語)가 되어서는 모든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단(單)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單)이 나를 보는(示)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광반조(迴光返照)입니다.

인간 내가 아니라 단(單) 즉, 자성(自性)이 내가 되어 보는(示) 모습이 바로 선(禪)이란 글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선(禪)은 단(單) 즉, 하나님이 내가 되어 보고 있는(示) 모습을 그대로 캡처한 상형(象形)입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견성(見性)이 아니라 성견(性見)이 옳습니다. 흔히 알고있듯 인간 내가 자성(自性)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성이 나를 보아야 합니다. 아 견성(我見性)이 아니라 성견아(性見我)입니다.

“너무 울어 텅 비어 버렸는가, 이 매미 허물은.”

바쇼(芭蕉, 1644~1694)의 하이쿠(俳句)입니다. 멋지지요.

인두껍, 마귀 껍데기를 훌렁 벗어던지고 우화등선(羽化登仙)한 매미 즉, 하나님이 남긴 뒷모습을 이토록 아름답게 포착하니 말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인간 조희성의 여정, 그 조희성을 벗어던지고 이긴자로 거듭나 역사하시다 보광(普光)하신 주님의 그 지난한 역정(歷程)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벗어던진 이 매미 허물에서 주님의 뒷모습을 느낄 수 있을테지요.

인두껍을 벗어던지고 자성 하나(單)만 남기려 하는 선(禪)의 본모습은 어찌하면 그대로 매미입니다. 해서 한자로 선(禪)과 매미(蟬)는 이토록 닮아 있습니다. 매미 선(蟬)은 벌레 충(虫) + 단(單)이니 하나님(單)으로 거듭난 네 생물의 왕(虫)입니다.

선(蟬), 이 글자는 허물을 벗고 날아가는 매미의 모습이 마귀 탈을 벗고 훌훌단신 훌가분하게 날아가는 대자유인의 모습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선(禪)과 매미 선(蟬)은 동자(同字)입니다.

자, 다시 꿈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어지는 장면에서 꿈꾼 분은 주님과 함께 발을 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 그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호미를 들고 발을 매고 있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발은 당연히 마음 발입니다. 자성(自性)의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마음 발입니다. 그 마음 발을 주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구고 계십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사실 더 이상의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내 마음 발을 하나님과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주님이 이정도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 다음은 어찌 될까요.

역시나 다음 장면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세단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상징으로서의 차는 영적인 탈것, 영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자동차는 옛날로 치면 말이나 소가 끄는 우마차(牛馬車)와 매한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도 말도 천마지우(天馬地牛),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단차를 타고 있는 이 장면은 백마(白馬) 즉, 하나님이 끌고있는 마차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그대로 신데렐라입니다. '영적' 신데렐라말이지요.

여기서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롤스로이스를 한 대씩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공약의 말씀 말입니다. 롤스로이스까지는 아니지만 이분은 이미 세단차를 함께 타고 계십니다. 아니, 이 차가 혹여 롤스로이스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을 따라가며 해석하면서 이렇게 신난 적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미 롤스로이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여기서 성도분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단차가 원래 두 칸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는 세 칸이더라고요.”

실제 승용차는 보통 두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세칸입니다. 왜일까요? 두칸, 둘은 음양(陰陽)이며 나와 너의 이분(二分)입니다. 두칸인 차는 인간의 의 숫자입니다. 이 세칸짜리 세단차는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인간적, 마귀적 세계에 속한 차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의 영(靈)이니 주님께서 이토록 칭찬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잘 올라가는 사람의 얼굴은 말야, 보통 사람들은 봐도 모르지만 이 사람 눈으로는 그 얼굴이 달라. 영적으로 달리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어.”

느껴지십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마귀가 얼마나 탐타고 시기할지 아시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말입니다. 물론, 영적인 상황과 상태는 일초일초 급변하는 것이니 바로 다음날, 당장 나가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러나 당신 지식의 중심과 선전(善戰)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슬프도록 선연(鮮然)합니다.

이 장면은 주님이 완성자로 거듭나셨을 당시 “너는 그대로 참 선하고 아름답다. 너는 귀염구나, 보기에 이쁘다.”라고하신 영모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니, 이 성도분이 당시 이긴자가 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꿈은 이분이 영적으로 추구하고 수확을 거두는 단계도 아니고, 아예 겨우 마음 발에만 잡초를 뽑고 있는 중이라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흐트러지면 눈물로 통곡하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바로 서면 마치 자신이 온 우주를 이기고 이긴자로 우뚝 선 그 모습인 양 기뻐하고 칭찬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다'며 흐뭇해 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金擇 / 의사 kimtaek8@nate.com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만물은 신이다 All things are gods

만물은 신이며 중성자(光)는 하나님의 생명 물질이다.
▶All things are Gods, and neutrons are the life substance of God.

이 세상 만물이 신이요, 신이 아닌 만물이 없다.
▶Everything in this world is God, and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God.

이미 태양 빛보다 억 천만 배나 빠른 또 다른 빛이 있다.
▶There is already another light that travels 100 million times faster than the sun's light.

엄청나게 빠른 빛이 중성자로부터 쏟아져 나간다.
▶Incredibly fast light pours out of the neutrons.

그 중성자의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며 하나님의 빛이다.
▶The light of the neutron is the light of life and the light of God.

하지만 그 생명의 빛이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궤도에 가로막혀 있다.
▶However, the light of life is blocked by electron orbits revolving around it.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신이 마귀 신에게 사로잡혀있는 상태가 이 세상 만물이다.
▶Unfortunately, the condition in which God is possessed by the devil is everything in this world.

중성자의 신비가 벗겨질 때 우주의 신비가 벗겨질 것이다.
▶When the mysteries of the neutron are unraveled,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will be unraveled.*

by Alice

이자삼점(∴)의 출현

“이자(∴)는 세 점으로 이루어지고 세 점이 세로 줄도 가로 줄도 아닌 것을 말한다. 마해수라라는 천왕(天王)의 면상에 세 눈이 있는데 이 천왕의 세 점도 정립하여 그 형상이 이자의 세 점과 같다. 까닭에 열반경에서는 여래, 지혜, 해탈의 세 가지 덕목이 합쳐져 떨어지지 않음을 뜻하고…(불교학대사전, 흥림원 판)”



법당 벽면에 그려져 있는 이자삼점(∴)과 이자삼점의 뜻을 표현한 그림(좌)

대반열반경 8권
여래성품4-5 83쪽

“이(伊)자라야 불법이 되며 미묘하고 깊고 깊어서 연기가 어려워져 자재천 대법천 왕과 같다. 대반열반경을 보호하여 가지며 또 능히 자재로 설법하시고 또 다시 이자는 능히 중생을 위해서 자재로 설법하신다. 또 다시 이자는 자재하기 위하여 말하하니, 그것은 방등경전을 닦아 익히는 것이다. 이자는 질투를 끊고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서 다 길상(吉祥)으로 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리므로 말해서 이자라 하는 것이다.”

1 대법천(大梵天): 색계 가운데 초선천(初禪天)의 주재자가 머무르는 하늘.

伊者佛法 微妙甚深難得 如自在天大梵天王 法名自在若能持者則名護法 又自在者名四護世 是四自在則能攝護大涅槃經 亦能自在敷揚宣說 又復伊者能為衆生自在說法 復次伊者為自在故說何等是也 所謂修習方等經典 復次伊者為斷嫉妬如除障礙 皆悉能令變成吉祥 是故名伊

해설:

‘이자(∴)’는 방등대승경전이며 이자(伊字)야말로 능히 중생을 위해서 자재로 설법하시는 것이며 이자는 대반열반경을 닦아 익히는 것이다’라고 이자삼점을 정의

한다. 이 뜻은 이자(∴)란 그 어떤 관념적 왕 法名自在若能持者則名護法 又自在者名四護世 是四自在則能攝護大涅槃經 亦能自在敷揚宣說 又復伊者能為衆生自在說法 復次伊者為自在故說何等是也 所謂修習方等經典 復次伊者為斷嫉妬如除障礙 皆悉能令變成吉祥 是故名伊

것이다. 이를 유교와 기독교에서는 삼태극으로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각각 표현했던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말씀했듯이 이자삼점(∴)에는 두 분 스승을 거쳐서 세 번째 완성된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 두 분의 스승 중 한 분은 여자라고 경전(增壹阿含經) 三供養品第二十二에 암시되어 있다. 한편 한 자에서의 이자(伊字)의 내력을 알아보면, 중국 허남성 노씨현에는 웅이산이 있으니 이 산에서 물이 흘러 이양강을 이루고 낙양강을 거쳐 낙수로 흘러드는데, 여기서 이양강은 불성을 이어받은 첫 번째 스승을 의미하고, 낙양강은 두 번째 스승이며 낙수는 불성을 완성한 세 번째 분을 뜻하니 이같이 상류 중류가 하류에서 합쳐져야 완전한 강을 이루는 형상이 삼점의 의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삼신일체가 바로 미륵부처님의 몸인 것이다.*

2 云何爲三 一者女人 (중략) 此是三世法, 露則第一妙. : 한 분은 여인(女人)이다. - 중략 - 이것이 삼세법인데, 감로이슬이 제일로 미묘하다.